

우리는 무상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성전스님 -

개방형실험실, 창업기업 5개사와 KHF 2026 통합홍보관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이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KHF 2026’에 참여기업 5개사와 통합홍보관을 운영하며, 병원-기업 협력 성과를 선보였다. 이번 홍보관에는 (주)비너, (주)일렉필드퓨처, (주)크림봇, 유진바이오소프트(주), (주)레몬헬스케어 등 개방형실험실이 발굴·지원해 온 5개 창업기업이 참여해 자사의 의료기술과 제품을 직접 소개하며 의료 기관·산업계 관계자들과 활발히 교류했고, 병원 임상 역량과 연계된 기술사업화 및 공동연구 성과도 함께 전시됐다.

권범선 개방형실험실 사업단장은 “병원과 창업기업이 의료기술 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산·병 협력의 가능성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임상 전문성과 기업의 혁신 기술을 연계해 창업 기업의 성장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임금협약 체결식 개최

동국대학교병원은 지난 8월 11일 병원 4층 제2회의실에서 2026년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지난 7월 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노사 양측이 신의성실의 자세로 협상해 원만한 자율 합의를 끌어냈다.

백용해 병원장은 “노동조합이 병원의 위기를 함께 공감하며 양보해 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기본급 인상, 식대 보조금 현실화, 3교대 간호사 근무표 개선 등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식적인 선에서 원만히 합의해 뜻깊다”고 전했다. 노동조합 측도 자율 타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행복한 일터 조성 and 병원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2026년 화재대비 합동 소방 훈련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13일 한방외래 및 인공신장실 간호사와 교직원 약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대비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3층 한방외래 치료실에서 뜸 치료 중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4층 인공신장실은 한방외래 화재로 인한 연기 확산 상황을 가정하여, 연기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속에서 환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하며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아름다운 마침표, 새로운 출발’ 2026학년도 1학기 교직원 정년(명예) 퇴임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19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1학기 교직원 정년(명예)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가정의학과 성낙진 교수, 한방침구과 김경호 교수, 한방내과 정지천 교수, 외래간호팀 김은희 과장이 참석해 오랜 시간 병원과 함께하며 환자 진료와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병원은 퇴임자들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백용해 병원장은 축사에서 “헌신적인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오랜 여정을 마치고 맞이하신 아름다운 마침표에 큰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출발의 순간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따뜻한 작별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병원과 함께해 온 퇴임 교직원들의 헌신을 기리며, 새로운 여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